

# 전북현대 내일 제주와 안방 맞대결

### 최감독 "경기장 찾은팬 들 위해 공격적인 축구하겠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내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3라운드'를 치른다.

전북은 유독 제주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 왔다. 역대 상대전적이 38승 16무 2패 116득점을 기록하며 제주를 상대로 최다승과 최다득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의 전북의 위력은 절대적이다. 2005년 최강희 감독 부임 이후 8승 4무로 전북은 홈경기에서 제주에 패한 적이 없다. 전북은 이 기록을 이번 홈경기에서도 이어가려 한다.

최 감독은 "기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만큼 제주에 강하다는 의미로 생각하겠다. 우리 선수들이 제주 뿐만 아니라 어느 팀을 만나도 홈경기 만큼은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경기장을

찾은 팬 들을 위해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번 경기에 외국인 선수 로페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4,214개의 오렌지 주스를 아이들에게 선물한다.

각 게이트에서 오픈 시간인 12시부터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또한 경기장을 찾는 팬들을 위해 1994 버스를 운행해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경기 전에는 동문 광장에서 김보경의 사인회와 키즈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있고, 하프타임에는 음식 배달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북 이철근 단장은 "개막전의 열기가 이번 제주전에도 이어지길 바라면서, 전주가 축구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모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 프로야구 오늘 개막...풍성한 기록 잔치 예고

### 이승엽 통산 450홈런 · 박용택 5년 연속 150안타 · 장원준 7년 연속 10승 달성 등 줄줄이 대기

프로야구 2016 타이거뱅크 KBO리그가 1일 개막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성한 기록 잔치가 예상된다.

지난해 KBO리그 최초로 통산 400홈런 고지를 밟은 이승엽(40·삼성 라이온즈)이 올 시즌 450홈런에 도전한다.

'기록의 사나이' 이승엽은 416홈런을 기록 중이다.

450홈런을 달성할 경우, 은퇴한 팀 선배 양준혁(47)이 보유한 통산 최다 득점(1299득점), 타점(1389타점), 루타(3879루타) 기록도 모두 깰 가능성이 크다.

이승엽은 1199득점, 1293타점, 3552루타를 치고 있다. 수상도 기록 행진이다. 이승엽은 지난해 400홈런을 때리며 사상 처음으로 골든글러브 10회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최고령 수상 기록을 갈아치웠다.

39세 3개월20일로 지난 2013년 이병규(LG)가 세웠던 최고령 39세 1개월5일 수상 기록을 새롭게 했다.

한·일 통산 600홈런도 가시권이다. 이승엽은 일본프로야구에서 159홈런을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합산 576홈런을 기록해 600홈런까지 25개를 남겨뒀다.

새로운 홈구장 삼성 라이온즈파크가 종전 대구구장보다 작아 이승엽의 홈런 기록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박용택(LG)은 5년 연속 150안타에 도전한다. 그는 지난해 159안타를 쳐 KBO리그 최초로 4년 연속 150안타를 달성했다.



지난해 KBO리그 최초로 통산 400홈런 고지를 밟은 이승엽(40·삼성 라이온즈)이 올 시즌 450홈런에 도전한다.

후타준족인 박용택은 도루 부문에서도 꾸준함을 자랑해 15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에 함께 도전한다.

국가대표 최완루수 장원준(두산)은 7년 연속 10승에 도전해 눈길을 끈다.

역대 2명밖에 없었다. 이강철(넥센 수석 코치)이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연속 정민철(해설위원)이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 연속 10승 이상을 달성했다.

장원준의 9년 연속 100탈삼진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자이언츠로 동지를 옮긴 마무리투수 손승락은 유일하게 구대성이 보유한 5년 연속 20세이브에 도전한다. 구대성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연속 20세이브 이상을 기록했다.

홀드 부문에서는 안지민(삼성)이 KBO리그 최초의 200홀드, 5년 연속 20홀드 등 굵직한 기록 달성을 노린다.

최정(SK)은 통산 사구(死球) 수가 161개로 최다 기록 보유자 박경완(SK 코치(166개)와의 격차를 5개로 좁혔다. 기록 달성은 시간문제다.

/김민근기자

###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 40세→50세 변경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WGHOF) 입회 자격이 종전 4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골프채널은 지난 31일(한국시간) 'WGHOF가 오는 2017년부터 입회 자격을 40세에서 50세로 높였다고 "은퇴한 지 5년이 넘는 선수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기존 규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잭 피터 WGHOF 회장은 "선수들의 체력이 향상되면서 현역 생활이 길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를 고려해 입회 자격을 50세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지난해 12월 만 40세가 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입회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다만 그가 은퇴를 한 뒤 5년을 기다리면 50세가 되기 전이라도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다.

최근까지 골프계에서는 WGHOF 입회 자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2년 42세의 나이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필 미켈슨(미국)도 "명예의 전당 입회는 커리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입회 최소 나이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러 WGHOF는 선정위원회 공동위원장 가운데 아놀드 파머를 잭 니클라우스로 교체했다. 이밖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공동위원장은 낸시 로페즈(미국)와 게리 플레이어(남아공),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등이다.

/김민근기자

### 마이클 조던, 은퇴 선수중 지난해 수입 1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53·미국)이 은퇴한 스포츠 선수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31일(한국시간) 지난해 가장 많은 돈을 번 은퇴 스포츠 선수 순위를 발표했다.

미국프로농구(NBA)의 전설적인 스타 조던이 1억1000만 달러(약 1280억원)를 벌여 전체 1위에 올랐다.

조던 브랜드 농구화 판매가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여러 회사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조던은 2003년 은퇴해 현재 NBA 샐럿 호네츠의 구단주를 맡고 있다.

포브스는 조던의 총자산이 11억 달러(약 12361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잉글랜드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41)이 6500만 달러로 조던의 뒤를 이었고, 골프의 아놀드 파머(87·미국)가 4000만 달러로 3위에 올랐다.

/김민근 기자

### ITF 순창 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 내일부터 시작

2016 ITF 순창 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가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순창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장에서 열린다. 대한테니스협회(주원홍)가 주관하고 국제 테니스연맹이 주최하며,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군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10개국 선수단 및 임원 25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다. 출전지역은 16세 ~ 18세 선수들로서, 9일 동안 열린 경기를 펼치게 된다.

특히 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외국선수단 교통대책을 위해 공설운동장과 숙박시설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1일 12회 운행해 선수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에서 펼쳐지는 국제대회인 만큼 참가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사항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2016 정구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연이어 펼쳐지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5월에도 제20회 한국초등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 제5회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제25회 전국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순창=구인규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